

3.3. 품사론

3.3.1. 품사 분류

3.3.1.1. 품사 분류의 필요성

품사(word class)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class)'이다. 품사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품사를 분류하는 이유는 수만 내지 수십만 개에 달하는 단어를 부류들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61) 사전에 표시된 품사

집다[깎:따] [기워, 기우니, 깎는[깎:-]]

「동사」【...을】

「1」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2」 글이나 책에서 내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다.

품사를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사를 통해 그 단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언어 사전은 품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심지어 잘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그 단어의 문장에서의 쓰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집다'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도 '동사'라는 점을 알면 이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의 대략적인 쓰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품사 분류는 사전 편찬이나 언어 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품사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지만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 특정 품사를 먼저 배운다든지, 품사 간의 차이를 은연중에 이해한다든지 하는 등 품사가 언어에 내재한 특성이라는 점도 품사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3.3.1.2. 품사 분류의 기준

모든 분류가 그러하듯 품사 분류에도 기준이 있다. 흔히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드는 것이 ‘기능(function)’, ‘형태(혹은 형식, form)’, ‘의미(meaning)’ 등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기능’과 ‘형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조적인 기준으로 ‘의미’가 사용된다.

(62) 저 우물이 매우 깊다.

‘기능’이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말한다. (62)에서 ‘깊다’는 사태를 진술해 주며, ‘우물’은 서술어 ‘깊다’와 관련을 맺으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이’는 앞에 오는 말의 문장 성분을 확실하게 해 주며, ‘저’나 ‘매우’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준다. 이처럼 문장에 쓰이는 단어들은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형태’란 단어의 형태적 특징을 말하는데,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양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어미에 의한 활용의 양상을 말한다. (62)에서 ‘깊다’는 ‘깊고’, ‘깊으니’처럼 어미에 따라 끝이 변화하지만 ‘저’, ‘우물’, ‘이’, ‘매우’ 등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의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형태 변화 여부도 품사 분류의 기준이 된다.

‘의미’를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들기도 한다. 이때 의미란 개별 단어의 차별적인 의미(sense)가 아니라 품사를 구성하는 부류 전체의 의미(meaning)를 말한다. 곧,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등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깊다’와 의미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는 단어는 ‘깊이’가 아니라,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높다’이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기능, 형태,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능’과 분리하여 ‘분포’를 중요한 기준으로 들기도 하고, 북한의 규범 문법에서처럼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 곧, ‘단어 조성적 특징’을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품사 분류의 기준을